

비공식 자원봉사에 따른 미래지향적 정책 · 제도 변화

이경훈(경기도 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새로운 교육혁신의 형태로서 비공식 자원 활동이 대두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논의로 여겨집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발표자의 논의를 이어받아 여기서는 비공식 자원봉사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탐색적 논의를 부쳐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비공식 자원봉사가 부각 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기하는 논제가 우리 사회에서 비공식 자원봉사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정책의 3가지 기본요소인 ‘대상’, ‘목표’, ‘수단’, 그리고 정책의 존립 기반인 사회적 ‘인식’과 ‘합의’ 등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 특성

“오늘날 진보는 민주적 방향으로 기존에 확립된 제도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이다”/ 로베르토 응거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과 범주를 결정 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비공식 자원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대상으로서 위상을 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범주의 획정이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향후 범주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그 출발점은 비공식 자원봉사의 특성에 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범주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이슈가 예상됩니다.

첫째, 주체의 문제로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조직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참여가 아닌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인 모임 · 동호회와 같은 비공식적 모임 혹은 SNS를 매개로 한 비대면 연결망에 기초해 있습니다(비조직).

둘째, 이런 비조직적 존재 양식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정책과 제도

와 연결된다는 것은 공적인 관리체계와 연결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포착해야 할지에 관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관리의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식 자원봉사를 포착할 수 있는 자원봉사 관리의 존재 양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비공식 자원봉사는 정책과 사회의 영역을 넘나듭니다.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사회혁신 등과 같은 다양한 시민참여의 방식과 관련된 정책영역으로 잘 정돈되지 않습니다(초경계).

수단: 저변

“기초종(Foundation Species): 다른 많은 종들에게 식량과 은신처를 제공하는 주요 생산자”

비공식 자원봉사의 존재 양식의 특징은 이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생태계 활성화의 접근이 요청됩니다. 정책집행자에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가 전달되는 대상이 명확한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생태계 전반에 관한 정책들이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도시재생 등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본질적인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식 자원봉사는 분명 오래전부터 실재해 왔지만, 시야에서 포착하기 어렵다 보니 정책 집행에서 사라졌습니다. 최근 비공식 자원봉사가 부각 되면서, 자원봉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추동력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자원봉사 전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공식 자원봉사는 분명 자원봉사 생태계에 새로이 등장한 생태계 교란종(Invasive)이 아니라 공식적 자원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저변을 형성하는 기초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협치의 주요 요소로 떠오르는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비공식 자원봉사라는 기초 종의 저변 강화로부터 비롯된다는 관점이 요청됩니다.

목표: 연결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보통 고객에게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데는 서툴다” / 유진 피터슨

그렇다면 ‘자원봉사 관리’는 자원봉사에 관해 어떤 정책목표를 지향해야 할까

요. 지금까지 자원봉사 관리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 기회와 시민을 연결하거나,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목표와 수단을 통해 역시 예전에는 손에 잘 잡히지 않던 정책대상인 자원봉사의 정책·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렇게 포착된 영역이 공식적 자원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목표의 방향은 비공식적 자원봉사를 별도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자원봉사의 연결에 두면 어떨까요. 이미 시민들은 새롭고 다양한 비공식적 자원봉사의 형태들을 창안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는 이런 활동들이 공식적 자원봉사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등 정책에 포착되는 ‘공식적’ 활동들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또 정책에 포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식: 조사

“정통성의 근원은, 이미 결정된 개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그것의 형성과정, 즉 속의 그 자체다” /버나드 마닝

정책의 기초는 정책대상과 현황에 관한 기초적인 파악과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비공식적 자원봉사 참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초 통계를 넘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비공식 자원봉사라 불리울 만한 활동들을 발굴하고 모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다양한 비공식적 자원봉사 활동 사례들이 축적되고 정리돼야 합니다.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자의 욕구, 활동 방식, 관계 방식 등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자원봉사 관리체계의 근간인 지역에 따른 특성과 현황 파악도 필요할 것입니다.

합의 : 공론장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김슨

주로 전문가나 정책 집행가들에 의해 이루어질 조사가 인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면,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인식에 힘을 부

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공론장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비공식적 자원봉사라는 사회적 개념과 의미를 지니고 있고, 여러 지역과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소통을 위한 공론장이 숙성되면 우리 사회의 비공식 자원봉사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더 깊은 공론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비공식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의 마련도 필요합니다.